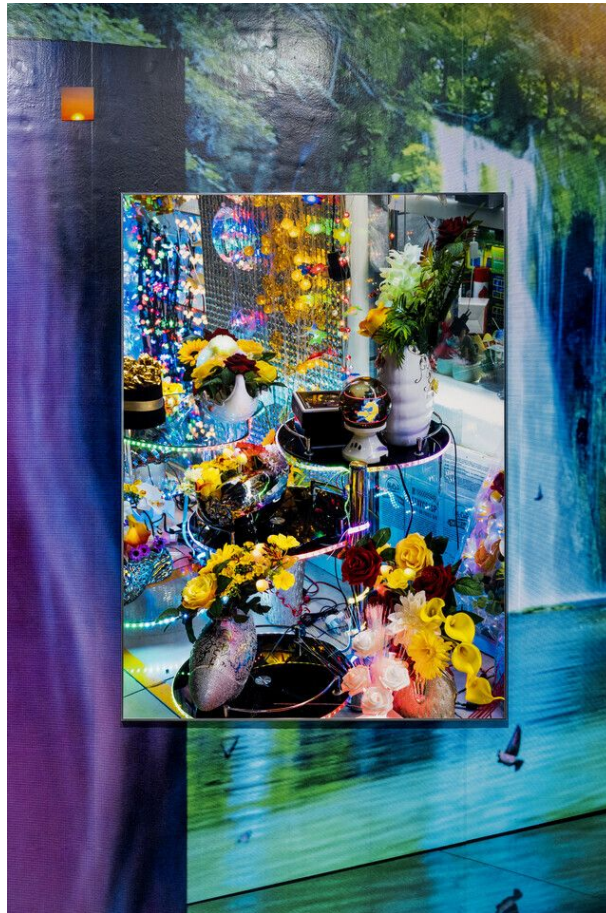


파라 알 카시미 한국 첫 개인전...LG전자·美구겐하임이 소개한 아티스트

지동현 기자
2024.06.12



파라 알 카시미, '드래곤 마트 조명 디스플레이' 사진=바라캇 컨템포러리

지난해 광주비엔날레에서 국내에 소개된 사진 영상 작가 파라 알 카시미가 한국 첫 개인전을 열었다.

서울 삼청동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파라 알 카시미의 국내 첫 개인전 '블루 데저트 온라인'을 8월 11일까지 개최한다. 한국의 MMORPG 게임 '검은사막(Black Desert Online)'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층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혼종성에 주목한 파라 알 카시미의 최근 5년간 제작된 대표 사진 작품 19여 점과 영상 작품 2점을 전시한다.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비롯되는 불안과 현실, 도피와 환상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포착했다.



파라 알 카시미. 사진=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파라 알 카시미는 지난해 LG전자가 미국 구겐하임미술관과 함께 신진 작가의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올해의 신예 아티스트’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그의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은 이숙경 예술감독의 추천 작품 10선에 포함되기도 했다.

뉴욕과 아랍에미리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파라 알 카시미는 사진,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아랍 국가의 탈식민주의 권력 구조·성별·취향에 대한 사회적 비평을 시도한다. 사적·공적 공간을 유동적으로 넘나들며 장소·순간·사물에 내재된 무언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탐구하고 있다.

작가는 광고의 알고리즘을 떠올리게 하는 특유의 작품 설치 방식을 선보인다. 작가가 찍은 사진을 이용해 전시장에 맞춰 제작된 대형 벽지를 바른 벽 위에 알루미늄 액자, 평면 모니터 등을 다양하게 배치해 이색적인 설치를 선보인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나 작가가 찍은 사진들이 작은 크기로 전시장 곳곳에 놓였다.

파라 알 카시미의 작업은 사진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낼 것인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서 어떻게 장소의 복잡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바라캇 컨템포러리는 “익숙하면서 낯설게 다가오는 알 카시미의 이미지들은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어디까지 착취하고 허용할지, 어디서 휴식을 찾아야 할지 끊임없이 묻는다”고 소개했다.

지동현 기자 ehagus1211@sportsworldi.com